

丁若鏞 易學과 화이트헤드 有機體 哲學의 비교

— 丁若鏞의 易理四法을 중심으로 —

金 京 一*

〈目 次〉

I. 서 론	基礎
II. 丁若鏞의 自然的 世界觀과 易觀	IV. 丁若鏞 易學思想의 過程哲學的 含意
III. 丁若鏞 易學思想의 理論的	V. 결 론

I. 서 론

『易經』은 변화와 생성, 그리고 세계의 통체적,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메타언어를 담고있는 동양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易經』은 끊임없는 변화생성의 흐름 속에 있는 세계의 본질을 陰·陽 두 요소의 錯綜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음과 양을 상징하는 선분으로 구성된 64卦는 그 세계의 특정 국면을 암시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64卦와 그에 딸린 상징적 언사들로 구성된 일련의 상징체계가 바로 『易經』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사를 장식

*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教授海外派遣 지원으로 이루어진 論文임.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하는 수많은 주역의 주석들의 관심은 바로 이 『易經』이 제공하는 典型(모델)으로서의 상징을 어떻게 실상에 응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 주석사의 외중에 전형(모델)을 심하게 의리적으로 해석하여 전형의 존재의의를 무색케 하거나(義理學), 그 전형의 고정된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象數學) 주석은 서로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형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갖추어야 할 적합성은 그 방법론이 제시하는 이론적 체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무수한 實狀을 실제로 포섭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丁若鏞(1762- 1836)의 학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저서 『周易四箋』에서 개진된 周易 解釋方法論으로서의 ‘易理四法’은 앞서 지적한 64卦 전형의 해석에 있어서의 두 극단의 폐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이 뛰어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易經』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왔지만, 서양적 관념들로 주역의 세계관을 해설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丁若鏞 역학에 대한 연구조차 몇몇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丁若鏞 역학이 표현하고 있는 주역의 의미를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의 개념과의 유비를 통하여 두 사상간의 보편논리로서의 유기체적 생성논리구조를 試論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丁若鏞의 自然的 세계관과 易觀

소위 맹자류 유학의 전통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善’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인간본성의 윤리적 가치를 넘어서, 그 철학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원시유학이래 유학의 각 학파는 그 견해를 달리한다. 주자나 양명과 달리 丁若鏞은 맹자의 성선론의 체계에

서 사단에 주목한다. 丁若鏞이 이 ‘四端’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계에 속한 인간의 종적 특성으로서의 ‘靈性’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성은 경험세계를 초월한 영역에 있는 ‘上帝’를 지향하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맹자류 유학의 전제로서의, 도덕적 인간의 가능성을 담보해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丁若鏞이 파악한 四端이 주자의 경우처럼 인간학적 본체로서의 四德이 발현된 것이거나, 양명과 같이 의식표면에 떠오른 본래적 앎(良知)과 함께 등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적 자연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단은 심리적 嗜好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맹자나, 주자적 의미의 天道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丁若鏞의 인간은 선악의 기로에서 실존적 선택을 해야하는 존재다. 인간에게는 상제를 지향하는 靈性외에 비도덕적 마음 역시 동등한 무게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丁若鏞은 맹자 성선론의 체계에서 주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天道와 人性의 연결고리를 단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丁若鏞의 태극 개념 역시 理와 같은 계열의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혼돈상태에 놓여있는 기적 실체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음양 두 기운의 錯綜이 빚어낸 가시적인 물체들(天地水火, 雷風山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내에는 경험을 초월한 어떠한 형이상학적 실재나 보이지 않는 윤리적 모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그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생멸해 나갈 뿐이다.

丁若鏞의 『易經』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그가 겪었던 지난한 인생 경험, 그리고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그의 세계·인간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인간이 도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자각과(물론 그 믿음은 결코 버리지 않았지만) ‘개인의 도덕’과 상황,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집단의 도덕’간의 불일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다 윤리적인 시각에서 『易經』을 바라보게 했던 실마리를 제공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가 나름대로의 메카니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던 그의 자연관 역시 『易經』 자체가 주는 변화생성의 메시지에 보다 충실히 주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丁若鏞은 ‘점서’로서 『易經』을 보는 시각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易은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가? …… 공정한善으로 일을 도모하는 경우에만해서, 그 일의 成敗와 禍福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만 易에 묻는다.¹⁾

丁若鏞에게 있어 선악의 기로에 서있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덕목은 자신의 선한 욕망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선한 동기의 행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즉 행위가 낳게 될 결과를 꼭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인간의 지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 때 『易經』을 통해 그 행위의 가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浮沈을 심하게 겪었던 丁若鏞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위안하는데 절실한 문제였을 터이다.

주자 역시 『易經』을 ‘占書’로 보았다.²⁾ 그러나 주자의 『易經』관과 丁若鏞의 『易經』관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주자에게 있어서 『易經』은 ‘점서’이자 ‘수양서’였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사상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대로 丁若鏞은 자연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연철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

1) 丁若鏞, 『周易四箋』卷4 「易論」, <與猶堂全書>3 (景仁出版社, 1987), p.376 “易何爲而作也? …… 唯事之出於公正之善 而其成敗禍福 有不能逆睹 而懸度之者 於是乎 請之也.”

2) 『周易傳義大全』, 「易說綱領」. “易只是與人卜筮以決疑惑, 若道理當爲 固是便爲, 若道理不當爲 自是不可做, 何用更占. 却是有一樣事或吉或凶兩歧道理 處置不得, 所以用占.”

자의 경우, 자연속에는 氣의 세계에 내재하면서 기적세계의 윤리학적 원리로 기능하는 ‘理’가 있었다. 丁若鏞의 경우에는 자연의 본질을 모사한 『易經』의 상징체계의 역할이, 最適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을 포함한 물질적 자연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제공해 주는 데 우선 역점을 두고 있으나, 주자의 경우는 평상시의 玩索을 통해 理를 깨달을 수 있는 수양서로서의 역할 역시 매우 강조된다.³⁾

자연 그 자체의 논리에 주목했던 丁若鏞은 『易經』의 상징체계의 해독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丁若鏞 역학사상의 중핵을 담고 있는 『周易四箋』의 일차적 목적은 ‘義理’를 玩索하는데 있지 않고 자연의 생성·변화 과정으로서의 상징 체계의 유기적 통일성을 해명하는데 있었다. 丁若鏞은 『周易四箋』에서 ‘易理四法’을 통해 卦·爻·象의 상관논리와 그에 대한 상징적 辭의 필연적 관계를 철저한 고증에 의한 객관적 해명을 바탕으로 義理易을 추구하는 점에서 주자의 易觀과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발견된다.

III. 丁若鏞 역학 사상의 이론적 기초

1. 易理四法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다. 그리고 『易經』의 64卦는 이 변화 생성하는 세계의 모습의 전형적인 국면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나 이 64卦를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해해야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3) 『周易傳義大全』, 「易說綱領」, “今欲凡讀一卦一爻, 便如占筮所得 虛心以求其辭義之所指, 以爲吉凶可否之決. 然後考其象之所以然者 求其理之所以然者 推之於事. 私竊 以爲如此求之似得三聖之遺意.” “易大概欲人恐懼修省. 今學易非必待 遇事而占方有所戒. 只平居玩味 看他所說道理於自家所處地位 合是如何. 故云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실상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는 『易經』 주석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丁若鏞역학은 일단 자연세계의 시간적 변화를 상징하는 卦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나머지 卦를 연역하는 기본구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卦가 상징하는 자연의 특정 국면은 독립,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공간적으로 얹어있는 음양의 錯綜에 의해 변화생성되며 다른 국면들과 그물처럼 얹혀 있는 상호작용의 와중에 있음을 推移·物象·互體·爻變이라는, 소위 易理四法の 상징해석을 통해 전달한다.

1) 推移

丁若鏞은 자신의 推移論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推移란 무엇인가? 冬至에 하나의 陽이 생하여 復卦가 되었다가 臨, 泰에서 乾에 이르면 여섯 陽이 성립한다. 夏至에 하나의 陰이 생하여 姤卦가 되었다가 遯, 否에서 坤에 이르면 여섯 陰이 성립한다. 이것이 소위 四時之卦이다. 小過는 大坎이고, 中孚란 大離다. 坎은 月이고 離는 日인데, (일월운행의) 시간 차이를 축적한 것이 閏이니, 이것이 이른바 再閏之卦이다. 四時之卦를 京房은 12辟卦라고 하였는데, 乾坤 두 卦를 제외하고 再閏을 대신 취하여 12辟卦를 채운다. 12辟卦에서 그 剛과 柔를 나누어 그것을 衍하면 50衍卦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大衍之數五十이다. 이것을 推移라고 한다.⁴⁾

인용문을 정리해보자면, 추이법에 의해서 64卦의 체계는 四時之卦, 再閏之卦, 그리고 그중에서 건곤卦를 제한 것을 12辟卦로 하여 연역

4) 『周易四箋』卷1 「括例表」, p.301 “推移者 何也. 冬至一陽始生 其卦爲復 爲臨 爲泰 以至於乾 則 六陽乃成 夏至一陰始生 其卦爲姤 爲遯 爲否 以至於坤 則 六陰乃成 此所謂四時之卦 小過者大坎也 中孚者大離也 坎月離日 積奇爲閏 此所謂再閏之卦也 四時之卦 京房謂之十二辟卦 今擬除乾坤二卦 別取再閏 以充十二辟卦 十二辟卦分其剛柔 衍之爲五十衍卦 此所謂大衍之數五十 此之謂推移也”

한 50衍卦로 짜여진다. 推移法이란 요컨대 하지(乾)와 동지(坤)에서 復卦와 姤卦로부터 음양이 生長하여 四時之卦가 마련되는 과정과, 12辟卦로부터 나머지 50衍卦를 연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이다. 丁若鏞의 이 12辟卦는 각각 1년 12개월에 배당되어 사시의 운행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들 辟卦를 축으로 卦가 연역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推移表>⁵⁾

	辟 卦	衍 卦
一陽辟	復, 剝	師 謙 豫 比 (一陽爻의 推移)
一陰辟	姤, 夬	同人 履 小畜 大有 (一陰爻의 推移)
二陽辟	臨, 觀, 小過	屯 蒙 頤 坎(臨 觀의 推移) 升 解 震 明夷(臨 小過의 推移) 萃 蹇 晉 艮(觀 小過의 推移)
二陰辟	遯, 大壯, 中孚	鼎 革 離 大過(遯 大壯의 推移) 訟 无妄 巽 家人(遯 中孚의 推移) 需 大畜 睽 兌(大壯 中孚의 推移)
三陽辟	泰	恒 井 蠱 豐 既濟 賁 歸妹 節 損
三陰辟	否	益 噬嗑 隨 渙 未濟 困 漸 旅 咸

推移論에서 丁若鏞 역학 사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再閏之卦⁶⁾, 즉 小過와 中孚卦이다. 丁若鏞이 再閏之卦를 辟卦에 포함시킨 이유는 四時の 순환을 기존의 12卦만 가지고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즉

5) 『周易四箋』卷1 「括例表·推移表直說」, p.303 “二陽之卦 皆自臨觀小過 而升降之 二陰之卦 皆自遯大壯中孚 而升降之 衍卦之中 二陽之卦 十二也 其四臨觀之所推移也(即屯蒙頤坎) 其四臨小過之所推移也(即升解震明夷) 其四觀小過之所推移也(即萃蹇晉艮) 二陰之卦 十二也 其四遯大壯之所推移也(即萃離大過) 其四遯中孚之所推移也(訟无妄巽家人) 其四大壯中孚之所推移也(需大畜睽兌)”

6) 재윤지괘의 명칭은 「繫辭傳」에 ‘五歲再閏’이라고 언급한 대로 대략 5년마다 두 윤달을 끼워야 일월운행의 차이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이 再閏之卦라고 했던 것이다.

역법상 해와 달의 운행 차이에서 비롯된 역법상의 차이를 윤월로써 보충해야 四時의 운행을 완전히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丁若鏞은 再聞之卦를 他卦를 연역하는 12개의 辟卦에 포함시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① 卦체의 특징이 이음(중부)과 이양(소과)이 가운데 단정하게 자리잡고 있어 그 형상과 기미가 산만하거나 편벽된 다른 卦와 구분된다. 또 推移法을 써서 二陰 辟卦인 遯, 大壯으로부터 中孚卦가 올 수 없고, 二陽 辟卦인 臨, 觀에서 小過卦가 올 수 없다.⁷⁾

② 中孚의 本인 離와 小過的 本은 坎인데 8卦 중에서 坎과 離의 卦形만이 始終이 없고 中正하여 음양이 차례로 消長하는 상이 없다.⁸⁾

③ 모든 爻가 正位, 즉 바른 위치를 차지한 卦는 坎離의 未濟卦다. 그러므로 모든 卦는 그 이면에 上卦에는 坎卦를 下卦는 離卦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④ 天地와 四時의 시공간적 요소만으로는 자연의 운행을 다 설명할 수 없다. 天地와 더불어 양과 음이 그 가시적 질을 갖춘 水火의 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水火는 天地와 함께 易의 네 기둥이다.

2) 物象⁹⁾

物象論은 8卦의 속성에 주목한 『易經』해석방법이다. 예순넛의 6획

7) 『易學緒言』卷4 「茶山問答·問中孚小過之義」, p.560 “兩兩相聚 卦形端正 超然自別 於五十衍卦之外 五十衍卦 其形象氣味 皆散亂偏畸 不能爲諸卦之母 而中孚小過 孑然特立 嶄然自潔 斷斷非尋常等列之卦也 且況二陰二陽之卦 皆自遯大壯 臨觀而來 獨此中孚爲卦 不自遯來 不自大壯來 又此小過爲卦 不自臨來 不自觀來”

8) 『周易四箋』卷1 「括例表」, p.301 “十四辟卦之中 唯小過中孚不受消長 八卦之中 唯坎離不受消長 蓋其卦形中正 無所始終...”

9) 「說卦傳」의 乾은 馬, 坤은 牛, 坎은 豕, 離는 雉라고 하는 것.(같은 곳, p.301 “物象者 何也 說卦傳所云 乾馬 坤牛 坎豕 離雉之類是也”)

卦를 一連의 3획卦 단위로 나누어 생각할 때 모든 卦는 8卦중 동일한 卦의 중첩이나 복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64卦에 딸린 詞 역시 八卦의 象들의 복합적 언설일 수밖에 없다. 즉 丁若鏞은 「說卦傳」에서 말하고 있는 3획卦의 象이 易詞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다시말하면 卦爻辭는 그 작자 자의에 의해 표상된 상징적 언어가 아니라, 卦 고유의 물상에 근거하여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卦가 표상하는 물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易詞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說卦傳」의 象대로 易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互體와 爻變의 방법이다. 이것은 6畫卦 표현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小成卦를 추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物象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방법이다.

3) 互體

互體 이론은 앞서 지적했듯이 卦象과 易詞와의 단순하게 일치시키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互體論은 육획卦를 內外 小成卦의 복합이 아니라 효단위의 유기적인 복합체로 볼 때 가능하다.

앞의 논의에서 필자는 64卦를 통체적인 아날로그적 흐름에 포섭되어 있는 세계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상징하는 선명한 디지털 신호로 얘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필요한 이유는 전형 사이를 매우고 있는 모든 사태를 이 전형을 기준으로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互體의 이론은 바로 전형을 바탕으로, 드러난 표상외의 사태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互體論을 통해서, 한 卦가 포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적 세계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互體법은 二효에서 四효까지를 下互로, 그리고 三효에서 五효까지를 上互로 삼는 것이다¹⁰⁾. 丁若鏞은 이전의 이론을 취사선택하여 大互·兼互·倒互·伏體·脾合 등의 응용된 互體이론을 전개한다.

① 大互

坎≡의 卦象을 보면, 가운데는 陽의 畫이 들어가 있고 그 위와 아래는 陰의 畫이 감싸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취한 卦는 모두 坎卦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離≡는 가운데가 陰이고, 그 위아래를 陽이 감싸고 있는 卦象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취한 모습을 취한 畫들의 집합은 모두 離卦로 간주될 수 있다. 가령 豫卦를 坎卦로 보고, 履卦를 離卦로 보는 경우이다. 즉 陽이나 陰의 畫 사이에 동일한 畫이 계속될 경우, 卦를 감이나 離卦로 단순화해서 보는 방법이다.

② 兼互

연속해 있는 음효나 양효를 하나의 효로 단순화해서 보는 경우이다. 가령 臨卦를 大震≡으로 보는 경우이다.

③ 倒互

倒互란 ‘互體를 뒤집는’ 것을 말한다. 도체란 卦를 뒤집어서 상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8개의 卦(乾, 坤, 坎, 離, 大過, 頤, 小過, 中孚) 거꾸로 놓아도 같은 모양이다. 이 경우 우선 기본적인 互體법을 적용한 다음 도체를 한다.(건곤은 純陽 純陰卦므로 불가능) 가령 坎의 경우는 그 234의 下互를 뒤집어 艮을 취하고, 上互를 뒤집어 震을

10) 『周易四箋』卷1 「括例表」, p.301 “互體者 何也 重卦既作 六體相連 自二至四 自三至五 各成一卦 此之謂互體也”

취한다. 離의 경우는 그 下互를 뒤집어 兌를 취하고, 上互를 뒤집어 巽을 취한다.

같은 방식으로 기본적인 互體法을 써서 大過와 頤를 倒互하면 乾과 坤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새로운 것이 없으므로 內卦와 外卦를 각각 到體한다. 小過와 中孚 또한 같은 방식으로 倒互하면 앞의 離, 坎卦를 倒互한 것과 같게 되므로, 역시 本卦의 내외卦를 그대로 뒤집는다. 이러한 倒互法 역시 ‘卦才를 전부 쓰고자 함’¹¹⁾이라는 丁若鏞의 말처럼 한卦의 자장안에 보다 폭넓은 사태를 포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④ 伏體

伏體는 음양을 자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홀수位的 획은 양으로, 짝수位的 획은 음으로 본다. 결국 下卦는 離가 되고, 상卦는 坎이 된다. 따라서 모든卦의 下卦에는 離(火)가 잠복해 있고, 上卦에는 坎(水)이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卦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⑤ 牌合

上下卦중 어느 하나를 도체하여 소남-소녀, 또는 장남-소녀, 장녀-소남의 상을 만들어 결혼의 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漸의 경우, 外卦인 巽을 도체하여 艮과 兌가 마주보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 남녀가 혼인하는 상태를 상징한다. 否와 泰의 경우는, 本卦에서는 艮과 兌를 취할 수 없으므로 互體를 겸하여 상을 취한다.

⑥ 兩互作卦

하나의卦에는 상하 兩互가 잠복해 있는 兩互로 새로운 重卦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兩互作卦로 할 경우, 원래의卦에서 三,四의

11) 같은 곳, p.305 “倒體者 卦才欲全用也 ”

획을 下互와 上互에서 공유하게 되므로 새로운 兩互作卦의 二,三과 四,五획은 자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⑦ 三易說

互體法 이외의卦 변환 방법으로서 交易 變易 反易의 三易이론이 있다.

交易이란 A의 上卦가 B의 下卦로 가고 A의 下卦가 B의 上卦로 교차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반역이란卦體를 180도 뒤집는 것을 말한다. 反易의 의미는 실제로 序卦의 원리로 적용되었다.¹²⁾ 反易을 적용할 수 없는 상하대칭의 八卦는 變易을 취한다.¹³⁾ 변역이란 六位가 모두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그 덕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¹⁴⁾

4) 爻變

丁若鏞에 따르면 爻란 交를 의미하고, 交는 음과 양이 서로 바뀐다는 뜻이다.¹⁵⁾

九는 老陽을 六은 老陰을 의미한다. 老는 미구에 있을 새로운 것(양 또는 음)으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는 끊임없는 음양의 錯綜의 전개이다. 그러므로 음의 기운은 항상 양을 지향하고 양의 기운은 곧 음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初九의 적극적 의미는 음이며, 初

12) 같은 곳, p.377 “周易編卦之序 全用反易”

13) 같은 곳, p.377 “無反對者 乃以變易作對 乾坤坎離等 八卦是也”

14) 『周易四箋』卷4 「括例表」下, p.377 “尙有三易 一曰交易 二曰變易 三曰反易 庖犧畫卦之初 因八爲重 泰交爲否 益交爲恒 此之謂交易也 六位皆變 闕德相反 屯變爲鼎 蒙變爲革 此之謂變易也 卦體顛倒 又見一卦 需反爲訟 師反爲比 此之謂反易也”

15) 『周易四箋』卷1 「括例表-爻變表直說」, p.25 “爻者變也 不變非爻也 卦畫之一二三四者 謂之畫(亦位也) 其一二三四之變者 謂之爻 爻者交也 謂陰陽交易也 今人認畫爲爻 頭腦已誤也 筮法 老陽其畫爲□ 老陰其畫爲× ×者交也 重×則爲爻也 爻字初作之時 原主陰陽交易之義 而反以不變者爲爻 可乎”

六의 적극적 의미는 陽이다. 따라서 특정 卦의 6爻는 각각 그 畫이 변했을 경우의 卦를 가리킨다. 즉 부분(한효)의 변화가 전체(卦)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卦는 卦를 구성하고 있는 爻의 변화에 따른 여섯 개의 다른 卦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丁若鏞은 卦辭란 爻變 이전의 本卦를 언급한 것이고, 효사는 爻變이후의 變卦를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 周公의 효사가 바로 이 효의 암시적, 적극적 의미에 걸맞는 物象을 취하였기 때문에 爻變을 알지 못하면 周公의 爻詞를 해독할 수 없다고 丁若鏞은 주장한다.¹⁶⁾ 세계의 특정 국면을 상징하는 전형으로서 하나의 卦는 이미 그 안에 또다른 세계의 사태,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爻變론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爻變은 64卦 상호간의 내적 긴밀성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의 양상을 그물처럼 치밀하게 엮어 반영한다.

가령 乾을 本卦로 하는 小畜, 姤, 同人, 履, 大有, 夬들은 동시에 乾의 本卦가 된다. 또 한편 위 여섯卦들도 爻變에 따라 건을 포함하는 다른 여섯卦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다.

2. 讀易要旨

丁若鏞은 「讀易要旨」라는 『易經』연구의 세부적 지침 18개의 항목을 담은 책을 저술하였는데¹⁷⁾ 그 가운데 爻變과 관련하여 ‘播性’과 ‘留動’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자.

① 播性: 앞서 언급한대로 한 획의 변화는 卦 전체를 변화시킨다. 즉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16) 『周易四箋』권1, 12면 참조.

17) 『周易四箋』卷1 「讀易要旨」, pp.307-310 참고. (1.抽象 2.該事 3.存實 4.顧名 5.播性 6.留動 7.缺本 8.用拙 9.變溯 10.疊現 11.比德 12.永物 13.建維 14.辨位 15.寓義 16.考古 17.認字 18.察韻)

때 본卦의 성질은 지卦의 성질 속에 잠재되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곧 ‘播性’이다. 즉 爻變에 따라 之卦의 물상에 주목하더라도, 여전히 之卦의 본질적 성질은 本卦가 좌우한다. 가령,

本卦가 升 ䷭ 이면 之井 ䷯ 之蠱 ䷑ 는 모두 위로 올라가는 象을 취한다. 비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 本卦가 復 ䷗ 이면 之震 ䷲ 之屯 ䷂ 은 모두 돌아오는 象을 취한다. 비록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 …… 모두 本卦 본성의 기운을 펴뜨려 그 德을 찬술한 것이다.¹⁸⁾

② 留動: 한편 之卦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변효가 本卦의 主, 즉 卦主일 경우에는 之卦를 상을 좇아 주목해선 않된다는 것이 ‘留動’이다. 가령,

師 九二의 ‘王三錫命’과 比 九五의 ‘王用三驅’는 모두 이른바 留動하여 卦主를 밝힌 것이니 …… 모두 爻變의 象을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¹⁹⁾

3. 蓍筮法

丁若鏞은 종래의 서법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치밀한 경전고증을 통해 독특한 서법을 제시한다. 丁若鏞의 易理四法の 논리는 『周易』 「繫辭傳」의 揲蓍求卦 부분에 대한 그의 해설을 통해 그의 筮法을 담고있는 「蓍卦傳」의 논리와 그대로 일치한다. 丁若鏞이 易理四法을 통

18) 같은 곳, p.307 “假如本卦是升 則之井之蠱 皆取升上之象 雖有卑降者 不顧焉 本卦是復 則之震之屯 皆取來復之象 雖有出往者 不顧焉… 皆所以播本卦之性氣 以撰其德也”

19) 『周易四箋』卷1 「讀易要旨·播性」, p.307 “如師九二之王三錫命 比九五之王用三驅 皆所謂留動 而明主也… 皆不取爻變之象者也”

해 구현하고 있는 세계이해는 그대로 그의 卦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揲蓍求卦의 논리는 특히 易理四法 가운데 推移論과 爻變論의 이론과 일치한다. 丁若鏞 역사상의 특색을 보여주는 그의 서법의 특징을 주자의 그것과 대비해 도표로 정리해보자²⁰⁾.

	주자	다산
1	50은 천수3과 지수2로부터 연역해 얻은 수. 역시 49개의 시책만을 쓴다.	大衍은 14辟卦로부터 연역된 50衍卦임. 숫자 49는 공평하게 갈리지 않는 수. 시책이 갖춰야할 원만한 덕이 있으므로 49개의 시책을 쓴다.
2	49개 시책을 임의로 반을 나뉘 양의를 상징.	49개 시책을 임의로 반을 나뉘 양의를 상징한다.
3	오른손 책의 하나를 왼손 약지,소지 사이에 끼운다. 양손의 책들과 함께 천지인 三才를 상징.	양손의 책수는 각각 기수(양책)와 우수(음책)이다. 陰策 가운데서 하나(四時를 상징)를 뽑아 韁帶에 걸어 놓는다.
4	四時를 상징하여 왼손 책을 넷씩 세고 남은 책을 왼손 무명지 사이에 끼운다. 같은 식으로 얻은 오른손 책의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각각 윤달을 상징한다.	양손의 책을 12벽괘의 四時를 본받아 넷씩 헤아린다. 헤아리고 남은 책수는 中孚 小過의 윤달을 상징한다. 각각 손가락 사이에 끼워 둔다.
5	왼손에 끼워둔 두 나머지 책수를 합하면 5, 혹은 9이니, 이것이 一變이다.	끼워둔 나머지 策들(통산하면 모두 넷이다) 중 하나와(두 윤달을 상징) 임시로 빼놓은(權掛) 한 개의 책(四時를 상징) 중에 임의로 하나를 뽑아 걸어둔다. 이는 64괘의 精髓를 총괄적으로 잡고 다시 그 빼어남을 뽑아냄을 상징한 것이다.

20) 『周易四箋』卷8, 「著卦傳」과 『周易傳義大全』「五贊」의 明筮와 筮儀를 참고.

6	일변의 나머지 책수를 제한 나머지 책수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더 되풀이 하여 삼변을 마련한다. 이때 얻어지는 나머지 책수를 통산하면 4혹은 8이다. 이때 4,5는 수가 되고 8, 9는 수가 되는데, 삼변이 모두 少인 경우 老陽(9), 삼변이 모두 多인 경우 老陰(6), 일변만 少일 경우 少陽(7), 일변만 多일 경우 少陰(8)이다.	뽑아낸 策에 새겨진 數를 版 위에 적는다. 이것이 ‘一變’. 3變 후에 畵을 얻는데, 再筮·三筮에도 初筮와 마찬가지로 49개의 蓍策으로 시작한다.
7	49책을 다시 취하여 반복하여 6회 畵를 얻음. - 육효 모두 7,8일 경우 본괘의 단사를 봄. -한효만 6,9일 경우 그 효사를 본다. -두효가 6,9일 경우 수미를 결합 -세효가 6,9일 경우 본괘와 지괘 단사를 봄. -넷또는 다섯효가 6,9일 경우 그 나머지 변하지 않는 효의 효사를 봄 -모두 6,9일 경우 之卦를 봄. -건곤괘는 用九와 用六을 봄.	반복하여 6畵 1卦를 얻은 후에 變爻를 구함. - 6획 모두 陰數(2,4,...10)와 陽數(1,3,...9)가 섞여 있는 경우 之卦를 고려하지 않고 본괘의 단사를 취함 - 6획 가운데 1획이 純畵인 경우, 그 획을 변효로 하여 그 효사를 취함. - 둘·다섯획이 모두 純畵이면 두효이상의 효변은 없으므로 순획에 해당하는 획의 책수를 變爻한 策만을 다시 구하여 그 효사를 취함. - 6획이 모두 純畵인 건곤괘는 用九, 用六의 繇辭를 취함.

이상을 도표를 통해서 주자와 차이가 나는 丁若鏞 蓍卦傳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① 再閏之卦를 상징하는 절차를 둔 것은 丁若鏞 蓍卦論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²¹⁾이다.

21) 『周易四箋』卷8 「蓍卦傳」, p.469 “閏者中孚小過 二卦之謂也 十二辟卦分配於十二月 則不可無閏月 中孚者大離也 離者日也 小過者大坎也 坎者月也 日月之有畸贏 而閏月以成 此二卦所以配之於閏月也 故揲蓍之後 又取其四時之餘 零奇之數 而歸之於中 以象二卦之象也”

② 丁若鏞의 경우 「繫辭傳」의 ‘天一 地二...’가 의미하는 것은 蓍策에 새겨 있는 수를 말한다.²²⁾ 따라서 50개 매책에 1-10까지의 수를 각각 다섯 개씩 써넣은 것이 바로 대연의 수 50이라고 설명한다.²³⁾ 따라서 주자가 손가락 사이에 끼워둔(扚) 나머지 수를 통산해서 一變을 나타내는 수로 삼은 반면, 丁若鏞은 64卦가 상징하는 세계의 본질을 摘示하는 한 책을 뽑아, 그 책에 적힌 수를 일변의 수로 삼는다.

③ 朱熹가 한 효가 얻어지는 3변이 끝날 때 까지 나머지 策數로만 되풀이 해서 효를 구하는 것과는 달리, 丁若鏞의 경우는 每變 49의 蓍策으로 揲蓍를 진행한다

④ 朱熹는 모든 짓가 변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 효만이 變爻가 된다. 따라서 주자의 경우 는 둘 이상의 변효가 생겼을 때 두 개의 繇辭를 보지만, 丁若鏞은 반드시 하나의 변효를 다시 구해 그에 따라 하나의 주사만을 참고한다. 결국 丁若鏞의 경우 주자와 달리, 하나의 변효를 구하는 다음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된다.

⑤ 變爻 求하는 법: 가령 占을 통해 얻은 乾卦의 첫 번째, 두 번째 획이 老陽일 경우, 初九의 策 36개와 九二의 책 36개를 합하여, 넷씩 헤아리고 남은 마지막 4개의 策가운데 임의의 하나를 뽑는다. 이 책이 初九의 策이면 初九를, 九二의 策이면 九二를 變爻로 하여 그 爻辭를 취한다.²⁴⁾

22) 『周易四箋』卷8 「蓍卦傳」, p.470 참고.

23) 같은 곳, p.470 “每蓍一策 各刻以天地之數 刻一之策 五枚也 刻二之策 五枚也 三四五六則八九十 各具五枚 此之謂大衍之策五十也 苟無刻之數 而用其天質 則揲之以四 歸奇於扚 不出乎一二三四之外 五六以上 將安用之 而經文若是哉”

24) 같은 곳, p.470 “假令一筮之間 其卦遇乾 而初畫與第二畫 俱得老陽 則筮人抽上牘 取乾初九之策三十六枚 乾九之二策三十六枚 合同滾轉 亦四四揲之 取末後之策四枚 數回摩轉 任抽其一 以授卦者 若是初九之策 則初爻變 若是九二之策 則第二爻變”

策數를 뽑는 방법: 參天兩地の 법에 따라, 純陽(老陽)은 9, 純陰(老陰)은 6, 少陽少陰은 7과 8이다. 여기에 蓍策을 헤아릴 때 쓰는 四時를 상징하는 數 4를 易率로 삼아 곱하여 특정 획의 책수를 계산한다. 위의 경우 乾卦의 경우 初九와 九二의 수 9와 易率 4를 곱하여 각각 36策이 된 것이다.²⁵⁾

IV. 丁若鏞 역학사상의 과정철학적 함의

1. 推移法과 생성과정의 논리

역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듯, 역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만물은 항상 변화와 생성의 과정에 있다. 통상 易의 의미는 易簡, 變易, 不易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자는 交易과 變易의 의미로, 이항은 不易과 交易, 變易, 易簡으로서 역의 의미를 구분한다. 그러나 丁若鏞은 역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變易’의 측면에 주목한다. 때문에 丁若鏞은, 주자의 『周易本義』에 실린 「卦變도」에서 발생하는 중복의 문제가 그 변화의 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겨 卦變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것이 그의 易理四法 가운데, 推移론이다. 推移는 四時之卦와 再閏之卦 가운데 乾坤卦를 제외한 12辟卦를 축으로 연역해내는 방법이다.²⁶⁾ 이것은 만물의 운행과 변화의 법칙을 사시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음양의 대대논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丁若鏞의 推移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부와 소과, 두 再閏之卦를 他卦 연역의 기준이 되는 辟卦로 둔 것이다. 丁若鏞역학의 卦變의 원칙상, 효는 하나씩 오르내려야 하는데

25) 『周易四箋』卷8 「說卦傳」, p.474 참고.

26) 3장 1절에서 논한 퇴이론 참조.

小過와 中孚卦는 동시에 두 개씩의 음양이 승강하므로 하나의 변례로 나타난 이 두卦를 丁若鏞은 辟卦로 설정했던 것이다.²⁷⁾ 즉 64卦 가운데서 이들 14卦를 제외한 나머지 50卦는 음양錯綜의 원리에 의하여 이들 14卦로부터 변화생성된다. 즉 음이 나가면 양이 물러나고 양이 자라면 음이 사라지는 음양의 錯綜에 의하여 卦(세계)의 생성이 이루어져 나간다. 따라서 丁若鏞은 大衍의 수를 圖書에 관계 짓는 것을 비판한다.

‘역에 태극이 있다’²⁸⁾고 하는 언명은 바로 음양의 錯綜이라는 역의 변화 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변화원리가 곧 태극이다. 丁若鏞에게 있어 이 태극은 세계의 궁극적인 근본실재인 우주론적 개념이 아니라 兩儀, 四象, 八卦, 六十四卦로 변화생성되는 과정을 관통하는 자연의 메카니즘이다.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다음과 같은 언표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자연은 현실적 현실태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연극과 같다. 모든 사물들은 움직임과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 속에 있다.’²⁹⁾

따라서 자연은 과정이며 관계의 망nexus일 뿐이다.³⁰⁾ 과정과 관계, 음양의 상호작용으로서 생성 변화의 과정과 음양대대로서의 관계는 우주를 이해하는데 중심개념이다. 과정철학에서는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전이, 또는 추이 transition이라고 한다. 현실적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현실적 존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됨’에 의해 또 다시 ‘됨’이

27) 중부와 소과괘를 재윤지괘로 삼아 벽괘로 설정한 이유는 3장 역리사법의 퇴이론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28) 「繫辭上傳」 “易有太極”

29) 화이트헤드, *Modes of thought*, 191 p. (cambridge, 1938)

30) 화이트헤드, *The Concept of Nature*, 53p. (cambridge, 1920)

구성되어져 가는 ‘됨됨’이다. 과정과 존재는 상대방을 서로 요구하고 있다. 즉 과정과 개별성은 상호요구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개체성과 과정이 상호 요구하고 서로를 전제하고 있듯이 음양과 변화는 對待하고 있다. 陰變陽化는 과정의 개체적 단위이며, 하나의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가 바로 개체성이다. 이 전체로서 있음 그대로가 자기 동일적이 되고 단일적 모습으로 보여진다. 음변양화 전체로서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 변화하지 않음(태극) 속에서 음양의 개별성은 변한다.³¹⁾

2. 互體와 爻變의 유기체적 세계관

互體의 철학적 의미는 二體觀적 사고를 배경한다는 데 있다. 효의 왕래는 시간적 사유라면, 二體觀적 사유는 공간적 사유이다. 음양의 互體 원리는 공간적인 사유인 이체관적 사유를 부정하는 상하연속체적인 사유를 함의하고 있다 하겠다. 互體는 현실적 존재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유기적 상호관계에 기초한 관계론이라 할 수 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주는 현실적 존재의 시공간 개념을 넘어서 세 포처럼 서로 얹혀있다. 역경의 卦상들은 天地人의 유기적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爻變을 설명하면서 지적했듯이 특정 卦의 6爻는 각각 그 畫이 변했을 경우의 卦를 가리킨다. 이것은 특정 卦가 卦를 구성하고 있는 爻, 즉 부분의 능동적인 변화에 의해 여섯 개의 다른 卦(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즉 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이미 그 안에 또 다른 현실적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爻變론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64卦 상호간의 내적 긴밀성을

31)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울:서광사, 1993, pp.106-107.

말하고 있는 爻變은 그물처럼 엮여 있는 세계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한편 독역요지에서 언급한 播性是 표면적으로는 爻變의 제한조건을 언급한 것이지만, 本卦의 성질이 之卦의 성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卦 상호간, 존재간의 상호작용을 암시하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태극은 전체로서 하나를 의미하며(統體一太極) 음양은 전체인 하나를 나눈 것이다. 나누는 측면, 즉 개별체에서 생성 음양은 대대관계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통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경에서 ‘모든 만물은 각각의 하나의 태극을 가진다.’(各具一太極)는 언표는 태극이 혼연일체의 상태로서 一即多 多即一, 전체 즉 개체 개체 즉 전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궁극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극은 하나의 큰 윤행작용이며 일음일양하는 도이며 변화와 생생의 궁극적 존재원리이며 동시에 과정의 원리이며 창조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과정이 근본적인 자기 창조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과정이 바로 모든 사실존재들의 가장 일반적인 형이상학의 면모이다. 多(많은, 개체)가 一로 되고 一이 多로 되어감으로써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行이된다. 이 점이 곧 자기창조이다. 화이트헤드 창조성이란 개념은 일과 함께 존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궁극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창조성이란 離接的 우주로서의 다자가 접속적 우주로서의 일자가 되는, 또 일자가 다자가 되는 궁극적 원리이다. 다자가 일자가 되며 일자가 다자로 되는 원리가 바로 창조성의 원리이다. 一者가 多者의 유기체적 통합이라면, 다자는 一者의 개체화인 것이다. 이것을 흐름으로 보면 과정이고, 관계로 보면 유기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라고 보는 현실적 존재를 유기

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유기체철학이라고 명명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한 사실의 파악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²⁾

3. 感通(易占)과 把握prehension

주자는 『周易傳義大傳』 「易說綱領」에서

역은 본래 점치는 책으로 후세사람이 점으로만 사용했다. 왕필에 이르러 노자 장자의 학으로 해석해서 뒷사람이 다만 이치로만 해석하고 점으로 쓰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이다. 요즘 사람들은 괘효는 보지 않고 계사만 보니, 이것은 형법을 보면서 형법책의 차례만 보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깨달겠는가. 요즘 사람이 필히 점치는 책으로 본다면 그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주역을 알 수 없을 것이다.³³⁾

또 정약용은 讀易要旨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을 읽는 요점을 18항목 가운데 첫째가 象을 뽑아 낸다는 抽象이다. 역이란 점을 치자는 것이다. 한 괘 한 짓라 할지라도 각각 만가지 사물의 象을 갖추고 있다.(변하지 않으면 괘요, 변하면 짓이다.) 천하의 만가지 사물을 점치자면 모두 이 괘 이 짓의 이치에 부딪치게 된다. 문왕과 주공은 만가지 象 중에서 한 象을 뽑아내다가 그의 占卦의 말로 삼았다. 그러므로卦나 짓로써 따진다면 만가지 사물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 지지만 그의 점치는 말은 만가지 사물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³⁴⁾

32) 화이트헤드, *Adventures of Ideas*, 185p. (New York, 1933)

33) 『周易傳義大全』, 「易說綱領」. “易本卜筮之書 後人以爲止於卜筮. 至王弼用老莊解 後人便只以爲理而不以爲卜筮, 亦非. 想當初伏羲畫卦之時 偶見得一是陽 二是陰 從而畫放那裏. 只是陽爲吉陰爲凶无文字. 文王作彖辭, 周公作爻辭, 孔子作十翼 皆解當初之意. 今人須以卜筮之書看之 方得, 不然不可看易.”

34) 『周易四箋』, 「讀易要旨」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자나 丁若鏞 두 학자는 『易經』의 본뜻이 점서임을 밝혀 복서적 논리(상수역)에 바탕하여 의리역도 통합해가는 입장에 있다. 우리는 두 사상가의 복서적 역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역은 우선 점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점을 치는 것은 복이며 점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점이다. 복이란 글자의 뜻은 하늘과 땅 사이(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를 들어(卜) 물어본다는 뜻이다. 점이란 복에서 물어본 것은 매개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점을 친다는 의미로 쓰이는 筮字의 뜻은 대가지(竹)를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工)의 일을 매개자(人)와 묻는 자(人)가 서로 문답한다는 것이다. 占이나 筮를 통해서 얻은 卦효가 곧 卦상 효상이 된다. 그러므로 丁若鏞이 그의 독역요지에서 첫째 항목으로 抽象을 꼽은 것이다.

「繫辭傳」에서 ‘음과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神이라고 한다’³⁵⁾는 언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속에 있다가 또 저 속에 있고, 문득 한 사물이 달려오고 달려가서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이 한 物이 사물과 사물의 사이에 두루 행하여 마치 이른바 음과 양이 굽히고 펴고 가고 오고, 위로 가고 아래로 오고 천만가지 주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³⁶⁾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음양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나 그 말미암는 이치를 헤아릴 수 없음이 神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창조주와 같은 신은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자연신론적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幾微를 아는 것이 신이다’³⁷⁾라는 표현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오묘하고 미묘한 작용원리를

35) 「繫辭傳」上 5, “陰陽不測之謂神”

36) 「繫辭傳」上5, 本義 小注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점을 일종의 자연과 우주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점을 통한 자연의 미묘한 작용원리, 즉 음양의 대대 유행의 율동과 感通하여,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共在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 ‘역은 생각함이 없으며 하는 것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느껴서 천하의 까닭을 통하게 되니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는가’³⁸⁾라는 언명은 감통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감통의 경지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유기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느껴서 통한다, 즉 감통의 가능근거를 우리는 「設卦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의 도를 세워 이르기를 陰陽이요, 땅의 도를 세워 이르기를 부드러움과 강함이요, 사람의 도를 세워 이르기를 仁과 義라고 하니’³⁹⁾

이것은 천지인의 유기적 관계에서 각각 개체화된 음양(多)이 태극(一)에로의 창조적으로 큰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 하나됨의 과정이 곧 占이라는 行이다. 행의 결과는 象으로 집약 표현된다. 따라서 象은 추상적인 모델로서 자연(우주)과 구조적으로 유기적 관계임과 동시에 과정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역의 감통이란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파악개념과 유비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 역시 긍정적 파악을 감응이라 부르고 있다. 그가 말하는 감응 혹은 느낌은 사전적 의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하나의 현실계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상 자료를 느낀

37) 「繫辭傳」下5. 知幾 其神乎!

38) 「繫辭傳」上10, “易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39) 「設卦傳」2장.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다, 혹은 감응한다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행위로서 감동적인 차원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단순한 관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感覺主義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다.⁴⁰⁾ 이 파악은 외부세계와 항상 관계되어 벡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 이 성격은 유기체적 실재론과 연관되어 있는 파악의 기본개념이다. 동적 에너지 개념으로 운동과 흐름의 구조를 갖는 모든 사물은 벡터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파악은 통일의 과정이며, 과정의 파악이 곧 자연인 셈이다. 파악은 의식이나 표상적 지각과 같은 것을 전혀 시사함이 없이 임의의 계기가 다른 현실적 존재들이나 영원적 객체들을 그 자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끌어들이는 일반적이고도 보다 기본적인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유기체철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합생하는 통합에 포함돼 있다가 느낌의 일정한 복합적 통일에서 종결되는 파악에 관한 학설이다.⁴¹⁾

V. 결 론

정약용의 易 해석방법의 논리적 근거는 易理四法이다. 이 易理四法은 위에서 언급한 바, 推移, 物象, 互體, 爻變으로 易 構成의 원리이며 동시에 해석방법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사태 가운데서 가장 마땅한 상태를 본뜬 세계의 전형이자 모델로서, 象을 중시하였다.

모델이, 현상의 총체를 표상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模擬構成體로 정의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델로서의 象과 세계(자

40)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pp 209-210.

41) 화이트헤드, *Process and Reality*, pp. 39-140.

연)의 구조적 관계 및 기본패턴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象은 언어로 표시되므로 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 곧 易의 언어인 易詞가 되며, 이 易詞를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기호로서의 卦 자체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默示的이므로 이를 明示的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卦의 상이다. 따라서 이 象이 卦의 전체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전형적 형식이 된다. 정약용은 「讀易要旨」 첫머리에서 역이란 점치는 것인 바, ‘한 상을 뽑아냄’(一曰 抽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象이 자연의 生·長·成의 변화과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해석논리가 推移論(논리적 구조), 互體論(복합구조), 爻變論(변화논리)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의 명제인 ‘실재=과정’ ‘과정=실재’의 등식에서 보면 자연은 과정이며, 생성이며 유기적 관계이다. 易理四法과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과의 유비에서, 논리적 유사성으로서 변화·생성·과정의 원리가 추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다산역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에 대한 이해의 한계, 그리고 비교철학의 논리적 정합성 및 적합성의 창출 부족으로 두 유사성의 유비가 서설적이며 시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필자는 솔직히 고백해야겠다. 이후 보다 진척된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